

## 이달 첫삽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시공사 확정

6개 공구중 5곳 우선순위업체 차지  
2공구도 곧 결정...공사 본격 착수  
5일엔 역대 시장 등 초청 기공식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시공사

공구	상호명	※광주인근 컨소시엄 참여 지역업체
1공구	롯데건설(주)청대아이엔지-뉴삼원종합건설	
2공구	우선순위 대우건설 평가중	
3공구	주식회사 태영건설(미래도건설)	
4공구	주식회사 한라(국제건설)	
5공구	주식회사 한화건설(한해건설)	
6공구	경남기업(주)화성산업-삼흥종합-선웅건설	

<속보>오는 5일 기공식을 갖고 이달 중 첫삽을 뜨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개 공구 중 2공구를 제외한 5개 공구 시공사가 최종 확정돼 2023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본보 8월22일자 1면>  
지난달 20일 마감된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해 우선순위업체로 선정된 대기업과 지역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모두 각 공구별 공사를 맡게 됐다. 다만 2공구는 관련서류 제출이 늦어져 3일나 4일째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공고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6공구에 대한 각 공구별 시공사(최종 낙찰자)를 통보받았다.  
1공구는 롯데건설(주), 3공구 태영건설, 4공구 주식회사 한라, 5공구 주식회사 한화건설, 6공구는 경남기업(주)이 각각 차지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달 20일 개찰결과 모두 우선순위로 선정

됐던 업체들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2공구는 우선순위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조달청 종합평가를 위한 관련서류를 이날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3일이나 4일째 결정될 예정이다.  
시공사가 확정된 5개 공구 모두 우선순위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2공구 역시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공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 1천224억5천500만원이 투입될 차량기지-운전저수지 2호선 1단계 1공구 공사는 롯데건설(주)과 함께 지역업체 청대아이엔지(주)와 뉴삼원종합건설(주)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5%다.

공사비 1천195억700만원의 1단계 3공구는 월드캡경기장-백운광장 인근 구간으로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함께 지역업체 주식회사 미래도건설이 25% 비율로 참여한다.  
백운광장-광주전 인근까지의 1단계 4공구 공사비는 993억6천600만원이다. 주식회사 한라와 함께 지역업체 국제건설(주)이 31% 비율로 참여한다.  
광주전-살레시오역고 인근 5공구는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지역업체 견해건설(주)이 1천55억6천4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설한다. 견해건설 참여비율은 29%다.  
6공구인 살레시오역고-효동초사거리 구간 공사비는 1천190억4천500만원이다. 경남기업(주)과 대구업체 화성산업(주)이, 지역업체인 삼흥종합건설(주)과 선웅건설(주)이 시공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6%다.  
조만간 시공사가 선정될 2공구는 운천로-월드캡경기장 앞 구간으로 공사비는 1천47억7천만원이다. 우선순위업체는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지역업체 주식회사 송화건설, 주식회사 태호, 유한회사 송원건설이 함께 참여했다. ▶2면에 계속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공판장 가득 매운 추석 선상품 추석을 10여일 앞두고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과일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2일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공판장에 끊임 없이 들어오는 과일의 흥수 속에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임정욱기자 jo6605@srb.co.kr

## “포털 지역언론 배제 국회 입법 통해 해결을”

언론노조, 국회서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ESG지표 활용에 압박  
제평위 제휴 요건 따로 분류 지적

네이버·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과 국민연금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포털의 뉴스 제휴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제휴 요건 대상에 '지역언론사'를 따로 분류해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신동근·기동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포털 뉴스서비스의 지역언론 차별 실태를 점검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하귀남 변호사(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언론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역언론사 배제 정책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하 변호사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사업자의 경우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또 하 변호사는 “기관투자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코드에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노력 수준’이란 평가 지표가 있다”며 “포털이 지역언론 배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ESG 코드를 이용해 기업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조국, 기자간담회 열고 의혹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내 무산되자 조 후보자는 ‘대국민 청문회’ 격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관련기사 4면  
조 후보자는 여당인 민주당의 주선으로 2일 오후 3시30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장관 후보자는 답할 의무가 있다.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기자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의혹과 가짜뉴스에 대해 실제적 진실을 소상히 알리는 기회가 없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조 후보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객관적 실체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 임명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보행안전 “서·고·요”

함께 지키면 더해지는 “교통안전”

도로에서는 **멈춰서** + **살피고** + **건너요** = 안전해요!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남지방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AGENCY